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허락하신 생명의 복음을 듣고 나아가 아직도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며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마다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리오 보낸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 콜롬비아는 어떻게 남미에서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나?

로드리고는 콜롬비아와 파나마의 국경 근처의 정글 지역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습한 지역 중 하나인 초코주에 아내와 함께 사는 기독교인 이고 어부이다.

이 마을은 외딴곳이라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고 경찰과 콜롬비아 당국의 보호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주민들은 주로 모터보트를 타고 거대한 아트라토 강, 바우도 강, 산후안 강을 건너 가며, 로드리고는 기쁨을 판매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고 그의 이야기를 처음 보도한 오픈도어가 전했다.

그는 이곳에서 사업을 잘 이어가고 있지만, 로드리고와 그의 가족은 고립되어 있다. 로드리고 가족이 살고 있는 지역의 대다수 원주민 공동체는 신앙을 이유로 이들을 배척했다. 원주민들이 행하는 정령 숭배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로드리고 가족을 사회적, 경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이렇게 고립된 로드리고는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게릴라 및 준군사 단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은 주기적으로 갈취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업을 폐쇄하겠다고 그를 협박한다. 이러한 범죄는 전국적으로 존재하지만 기독교인에게 특별히 더 영향을 미친다.

로드리고의 이야기는 지난 5년 동안 오픈도어가 발표한 월드와치리스트에서 콜롬비아가 남미에서 기독교인이 살기에 가장 위험한 국가가 된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를 잘 보여준다. 올해 보고서에



서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각한 국가 목록에서 콜롬비아는 전 세계 국가 중 34위를 차지했다. 오랜 민주주의 전통과 가톨릭 신자가 대다수인 이 나라가 어떻게 서반구에서 기독교인이 살기 가장 불안정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을까?

콜롬비아의 악명 높은 폭력의 시작은 1948년 자유주의 대통령 후보였던 호르헤 엘리에르 가이타이 암살당하면서 '엘 보고타조'로 알려진 국가적 비극과 정치적 폭력이 급증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엘리에르 가이타이의 사망 이후 쿠바 혁명의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자유주의 게릴라 단체가 등장하여 농촌 지역에 공포를 퍼뜨렸다.

1980년대에는 마약 밀매가 증가하면서 게릴라 그룹이 마약 밀매업자들과 동맹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0년대 파블로 에스코바르와 같은 마약왕이 몰락한 후, 이

들 단체와 그들의 반대 세력인 준군사 단체가 마약 밀매 사업을 장악했다. 1998년 크리스체너티 투데이가 보도한 바와 같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납치, 살인, 난민의 희생자가 되는 일은 이곳에서 종종 있는 일이다.

"콜롬비아는 두 가지 현실이 공존하는 나라이다.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그곳의 기독교인들은 시골 지역에서 일어나는 박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라고 스페인 오픈도어 국장 테드 블레이크는 말한다. "하지만 시골 지역에는 게릴라나 준군사조직과 같은 무장 단체가 있는데, 이들의 승인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으며, 이들에게 돈을 지불해야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오픈도어는 콜롬비아 농촌에서 벌어지는 두 번째 형태의 박해는 주어인 영토에서 스스로 규칙을 정할 수 있는 자치권을 가진 원주민 집단

에 의해 자행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규범은 기독교 신앙으로의 개종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공동체에서 추방되거나 토지를 몰수당하거나 경제적으로 배제되는 처벌을 받는다.

원주민 공동체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예과도로 남부의 카우카 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지역의 원주민 인구는 20만 명이 넘는다. 약 1만 4천 명으로 추산되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직장에서 해고되고 이주하는 등 사회적 배제의 고통을 겪었다. 북음주의 목사인 로젤리오 온다 트로체스는 2012년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코카인을 씹지 않고, 콜롬비아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조직된 도로 봉쇄에 참여하지 않고, 약초로 주술을 걸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쫓아냈다"라고 설명했다. (3면으로 계속)



###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그리고 십자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오래된 중고차를 타고 다닙니다. 17년만 해도 고급차였던 제 차가 이제는 여기저기 부식되고 힘도 팔려 고장 나면 폐차시켜야 할 수준이지요. 하지만 살살 달래가며 잘 타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통풍 시트가 안 돼서 여름이면 엉뚱, 등땀으로 축축해지는 것 정도입니다. 최근 나오는 차량들을 보면 부러운 기능들이 있습니다. 후측방 경고 시스템, 어라운드 뷰 모니터, 하이패스내장형 룸미러, 충돌 방지 시스템,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기능, 스탑 앤 고 기능, 스마트 하이빔, 자동 라이트, 스마트 트렁크, 차선 유지 시스템, 전동조절의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전자식 사륜구동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요. 이런 기능들이 달린 차를 구매하기에는 제가 가진 재정의 심히 연약함 때문에 언

감생심 꿈도 못 꿀 기능들입니다. 제가 고급 승용차를 사지는 못해도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기능들을 제 차에 붙일 수는 있습니다. 통풍 시트를 대신해 주는 쿨링 시트가 오픈 마켓에 있고, 후방 카메라나 센서가 안 붙일 수 있습니다. 신호 대기 중일 때 인위적으로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면서 스탑 앤 고 흉내도 낼 수 있지요. 하지만 제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자율주행은 오픈 마켓을 통해서 시도해 볼 수가 없습니다.

자율주행의 기본은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기능과 차선 유지 기능, 그리고 충돌 방지 시스템입니다.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기능은 차가 설정된 속도로 일정하게 앞 차를 따라서 스스로 주행하는 기능입니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이동진 목사



3면 푸른초장 임수영 목사



4면 신양동서 독후감 수상작 조진석 목사

16면

###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양)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4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 응시자격

본 총회지역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4년 6월 29일(30일 포함)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의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분.

### 고시과목

- a.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4과목)
- b.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4편)

### 제출고시 내용

-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주해하라
- 1. 구약주해: 레위기 1:1~9
- 2. 신약주해: 갈라디아서 2:11~21
- 3. 논문제목: 팬데믹 이후 주일학교(차세대) 활성화 방안과 전략
- 4. 설교본문(하나 텍스트): 구약 - 사사기 2:1~10 4 제목/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신약 - 골로새서 1:24 제목/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 5. 제출고시과목에 대한 규칙
  -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파일로 서기에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 a. 레터(8-1/2 X 11) 용지를 사용할 것.
  - b. 폰트 사이즈는 11이며, 줄간격은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사이즈이며 Double Space)
  - c. 논문과 주해는 각각25매 내외로 작성(표지와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10매 정도).
  - d.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할 것.
  - e. Pdf 파일을 보낼 때에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 이름도 본인 이름 및 과목 주제이름을 사용할 것. (예: 김요섭구약주해.pdf)
- c. 면접고시

### 서류제출방법

- a. 모든 응시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4년 3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4년 3월30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 b.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c. 합격자 발표는 48회 총회기간(5월 21일~24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증서를 수여함.

### 고시일자 및 장소

일자: 2024년 5월 20일(월)~21일(화)  
장소: Embassy Suites by Hilton San Francisco Airport Waterfront  
150 Anza Blvd, Burlingame, CA 94010

### 제출서류

- a.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2024년 6월29일 이전(30일포함) 졸업 예정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 b. 신학교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 c. 소속교회장 추천서 1부
- d. 소속교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 e. 이력서(약력과 자서전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년도와 교회, 집례자 등) 1부
- f. 명함판 사진 2장
- g. 고시료: \$100(USD) 서류접수 후 통보

### 참고사항

- a.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김요섭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20,21) 사용할 속소를 예약 할 것.
- b.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고시장소에 입실하기 전 지울 것.
  2. 시험중 화면을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는 경우 퇴장 당할 수 있음.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준비할 것.

### 제출처

고시부 서기: 김요섭 목사 (Rev. Joseph Y. Kim)  
주소: 2908 S Harvard Blvd, Los Angeles, CA 90018  
전화: 213-215-8523 / 이메일 laredeemer@gmail.com

### 기타문의

고시부 부장: 박희근 목사 (Rev. David H. Park) heepark91@gmail.com  
고시부 서기: 김요섭 목사(Rev. Joseph Y. Kim) laredeemer@gmail.com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회장: 김성국 목사  
서기: 유진상 목사  
고시부부장: 박희근 목사  
고시부서기: 김요섭 목사

발행인 칼럼

아디아포라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아디아포라(adiaphora)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무래도 좋은(indifferent)”이라는 뜻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래도 좋은 영역”이 있었는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한다. “지금 세상이 복잡해져서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지 않은 것이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선(善)인지 악(惡)인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 웬만하면 대부분에 “가치중립”이라는 평가를 하고 그 중립 지대에 적당히 끼어 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옳지도 않고 그르지도 않은 가치 중립적인 것은 없다. “아디아포라”라는 단어와 정의(定義)를 세상에서 쓰고 있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디아포라”의 개념과 실체는 없다. 그리스도인이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무래도 좋다며” 살아갈 수는 없다.

이처럼 아디아포라의 영역이 없다고 단호히 말할 수 있음은 “성경의 총족성” 때문이다. 성경은 인생의 그 어떤 문제라도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명확히 밝혀 주는데 총족하다. (딤후 3:16-17). 예수님도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 (눅 11:23)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중립지역은 없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아니면 다 악한 것뿐이다. 하나님의 모든 행동에 선 또는 악이라는 가치판단을 하신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이며 악이다.

아디아포라는 “무관심한(indifferent)”이라는 뜻도 된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것이니 실상은 무관심이 아니겠는가. 사람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차라리 밋다고 하지, 무관심은 감당하기에 너무 서럽고 너무 무섭다. “무관심의 절정”은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의 작품으로서 철학자 필리프 프리와의 대답을 읽고 있는 책이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질병이 있다면 무관심이고, 이 땅에 가장 큰 죄악이 있다면 다름 아닌 무관심이라고 “무관심의 절정”이라는 책 제목은 이 시대를 대변하기에 매우 적절한 제목이라고 할 수 있다. 왜 이 시대뿐이겠는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깊은 탄식이 있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마태복음 11:17) 무엇을 해도 도무지 반응이 없는 무관심에 대한 강한 질타이다. 그 뿌리 깊은 죄악과 질병이 오늘날 대부분 사람에게 도져서, 하나님께도 교회에도 이웃에도 이 세상에도 다음 세대에도 모조리 무관심. 오직 자기 자신의 문제를 제외한 모든 일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 그야말로 도처(到處)에서 무관심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는가? 예수님의 고난도 십자가도 없었을 것이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았을 것이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끝없는 관심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축복과 앞으로 누릴 유업과 영생을 가져다 준 것이다.

분명히 하자. 하나님 앞에서 아무래도 좋은 것은 없으니, 그리스도인들은 “아디아포라”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동경(憧憬)하지 말아야 한다. 관심 갖자. 이웃에게 무관심은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가져서는 안 되는 태도이니 “아디아포라”를 더 이상 삶의 방식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은 왜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하셨을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이 모른다면,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인가?



마태복음 24:36을 보면, 예수님은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하셨다.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긴다. 마태복음 24:36에서 예수님은 왜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했을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이 모른다면,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인가?

아들은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이시다

성경은 아들이 하나님(요 1:1; 골 2:9)이시요, 동시에 사람(요 1:14; 히 2:14; 빌 2:7; 롬 8:3)이라고 가르친다. 마태복음 24:36은 이러한 성경의 진리 중 어느 것보다도 모순되지 않는다. 이 점에 관한 성경의 규칙은 이렇다. 보통 성경은 때때로 그리스도가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하고, 또 어떤 때는 인성 면에서 아버지보다 낮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요 10:30)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아버지와 동등함을 확증하셨다. 그러면서 인성에 있어서는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요 14:28)이라고 가까이 인정하셨다. 이 기본 해석 규칙은 성경만큼 오래되었다. 이 성경 원리를 완전히 설명하는 글을 보려면 여기를 보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진리는 두 가지이다. “아버지는 종의 형체보다 크시지만 아들은 형체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바울의 주장을 근거로 이렇게 주장한다. 빌립서 2:6-8에서 바울은 아들이 본체에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인성에서는 종의 형체를 지녔기에 하나님보다 작다고 단언한

다. 그렇다.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다. 이 기본 진리를 알면 마태복음 24:36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 해석 규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기에, 우리의 구속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4:36이 드러내는 것처럼 인간의 무지를 포함하여 우리 인간처럼 사셨다. 이런 원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기 전에, 우리는 마태복음 24:36을 둘러싼 더 큰 성경의 맥락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태복음 24:36의 전후 문맥

푸아티에의 힐러리(Hilary of Poitiers, 310-367)는 삼위일체론(On the Trinity)에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아리우스파가 마태복음 24:36을 어떤 식으로 인용하는지를 설명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모르는 예수님이 본성에 있어서 아버지와 같을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다. 한 구절만을 놓고 보면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문맥에 맞게 읽는 것을 의미한다. 마태복음 24:36과 관련하여, 힐러리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앞뒤의 내용을 확인할 때 제대로 드러난다”라고 언급한다(De Trinitate 89.2). 힐러리의 이 말은 마태복음 24:36의 문맥을 이해하려면 본문 자체를 넘어서 마태복음 전체, 심지어 성경 전체를 읽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힐러리는 그의 삼위일체론에서 무려 두 장(9-10장)에 걸쳐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설명한다. 근접 문맥에

서 볼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36(마 22:41-46)을 말씀하시기 전에 우선 자신의 신성을 확증하셨다. 마가복음의 평행 구절(막 13:32)에서도 예수님은 이 말씀에 앞서 자신의 신성을 확증하셨을 뿐만 아니라(막 12:35-37), 마가는 마가복음 11:15-19에서 예수님이 주 하나님으로 성전에 오시는 모습을 묘사한다. 이는 마가복음 서두가 암시하는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막 1:2). 전체로 볼 때, 성경이 증언하는 바는 분명하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다(요 21:17; 시 44:21). 아들과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신 6:4; 요 10:30). 바울이 말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모이 되어 머물고 계시고”(골 2:9).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요 1:16; 골 2:10). 그리고 언급한 바와 같이, 성경은 또한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요 1:14)고, 그리고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다”(히 2:14)고 분명하게 가르친다. 성자 하나님은 사람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에게 두 가지 본성이 있다고, 즉 신성과 인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람이신 게 사실이라면, 마가복음 8:29이나 마태복음 24:36에서도 그분이 자신의 그런 존재를 멈추실 리가 없다. 마태복음 24:36을 성경의 맥락에서 읽으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인간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관한 진리에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

이 문맥은 몇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

Q: 마태복음 24:36에는 “아들”이라는 단어가 있는가?

A: 그렇다.

Q: 아들이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신가?

A: 그렇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도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함께 들어있어야 한다. 중요한 건 이 점이다. 설혹 어떤 구절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굳이 다 설명할 의도가 없다고 해서, 완전한 그리스도가 완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7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역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독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할렐루야백화점
2024년 다이어리 | 신년 교회배너 | 헌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 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lmall@hotmail.com

담임목사 청빙 광고
민음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살렛 벨엘 교회에서 함께할 담임 목사를 찾습니다
저희 살렛 벨엘 교회는 ARP (Associat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교단 제일 노회 (First Presbytery) 소속이며 노스 캐롤라이나 살렛에 위치 하고 있고 깊은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28 년동안 우리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시고 은퇴를 하시기에 되였기에 열정적이고 전문적인 차기 목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
성경적인 교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가진 자
한국어 와 영어 모두 능통한 자
영주권자 나 시민권자 로써 이민법상 신분애 문제가 없는자
ARP 교단에서 인정 한 학교의 M Div. degree 이상 소유자
ARP 교단 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나 인준 기준에 걸격 사유 없는자
이민교회 목회 사역 3년 경력 이상 (전도사 포함 5년 이상)
미국과 한국에서 신학 공부 한자
연령: 43세 - 55세 (만 나이)
제출 서류:
이력서 (사진과 가족사항 포함) - 3 page 이하
자기소개서 (사역 경험과 목회 비전 포함) - 10 page 이하
목사 안수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 증명서
최근설교영상 (2년 이내) - YouTube Link 또는 영상 파일
모든 서류는 .pdf 형식으로 제출 바랍니다
원서 접수 마감일: 2024년 3월 31일
관심있는 분은 서류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 들 이 있다면 함께 첨부해 주세요. 제출된 서류는 청빙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원을 기다리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의껏 검토후 후 개별적으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빙위원회 위원장 이민혁 장로 email: bethelkc7121@outlook.com Cell: 704-724-2465
살렛벨엘교회 청빙위원회
7121 Delta Lake Dr, Charlotte, NC 28215 | (704) 566-7173

담임 목사 청빙 공고
새민음장로교회는 개척 설립 후 24년이 된 교회로, PCA(미국 장로회) 한인남부노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제1대 담임 목사가 2024년 11월에 은퇴를 준비하면서 제2대 담임 목사를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자격 요건
1. PCA 교단 소속이거나 교단 가입에 하자가 없으신 분
2. PCA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 대학이나 일반 대학(B,A) 졸업 이후에 신학대학원(M.Div) 이상을 공부하신 분
3. 미국에서 합법적인 취업에 걸격 사유가 없으신 분(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4. 목사 안수 후 Full Time으로 미국에서 3년 이상의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담임 목사 또는 부목사)
5. 이중 언어 설교(한국어/영어)가 가능한 분
6. 목회에 걸격 사유가 없으신 분
7. 나이는 만 40세에서 55세까지에 해당되신 분
제출 서류
1. 이력서(사진 첨부, 한국어) 2부
2. 자기 소개서 및 가족 소개서 2부
3. 목사 안수 증명서 2부
4. 대학 졸업 증명서 2부, 신학교 졸업 증명서 2부
5. 추천서: 목회자 추천서 1부, 신학교 교수 추천서 1부(추천자가 직접 이메일(lee1954us@yahoo.com)로 제출함)
6. 최근 6개월 이내 설교 동영상 3회분(USB로 제출)
7. 나의 신앙 고백서 2부
8. 나의 목회 철학과 이민 목회 계획서 2부
유의사항
1. 모든 서류는 프린트하여서 우편으로만 접수를 받으며 설교 동영상만 USB에 담아서 함께 제출하실 것
2. 모든 서류는 오직 목사 청빙에만 사용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청빙 결과는 개별 통지에 드리며 전화로 문의하는 일은 사절합니다
4. 제출 마감은 2024년 4월 15일까지이며, 제출처는 <새민음장로교회 청빙위원회 귀중, KFPC 9742 Clay Road, Houston, Texas, 77080>입니다.
5. 2024년 6월 말까지 결정이 되면, 7월부터 10월까지의 동사목사로 시무하며, 11월 10일 주일에 담임 목사 이취임식을 할 예정입니다
6. 새민음장로교회의 웹사이트는 WWW.KFPCH.ORG 입니다.
PCA 한인남부노회 새민음장로교회 청빙위원회
Korean Faith Presbyterian Church
9742 Clay Road, Houston, TX, 77080











신앙칼럼



차용호 목사 (센터발한인장로교회)

작은 야고보 (James the Less)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제자가 패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의 별명은 작은 야고보였습니다. (막15:40) 야고보는 수제자 베드로처럼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일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세배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처럼 정치적 야망을 가진 적도 없었습니다. 실증주의자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한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작은 야고보는 앞에 나서는 일이 없었습니다. 작은 야고보처럼 작은 야무개라는 별명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일하는 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작은 것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마 25:23)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작은 겨자씨 한 알에서 큰 나무를 보셨고,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작은 겨자씨에서 천국을 보셨습니까. 작은 것을 크게 보고 큰 것을 작게 볼 수 있다면 그는 예수님의 눈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작은 것을 크게 볼 수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요,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작은 야고보를 주님이 보실 때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대한 가치를 인식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게 됩니다.

유대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는 '작은 야고보는 제자중 제일 미남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이 작은 야고보를 제자들 중에서 제일 미남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그림 중에서 제일 미남을 고르면 그 사람이 틀림없이 작은 야고보입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이 너무 좋아서 평생 주님 앞에서 조용히 주님을 섬겼던 아름다운 제자가 바로 작은 야고보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작은 야고보처럼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큰 자라고 칭찬하십니다.

작은 야고보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제자입니다. 작은 야고보는 요란하지



않아도 항상 있어야할 자리에는 그림자처럼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업적이나 행적은 많이 찾을 수 없지만 삼복음서인 마태복음10장 3절과 마가복음 3장18절과 누가복음 6장15절에 작은 야고보가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많이 참견하나 큰 소리 치지도 않으면서 조용히 자기의 할 일을 성실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재주는 없어도 말없이 복음을 위해 충성한 사람입니다. 겸허하게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아름다운 제자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런 작은 야고보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힘들다고 다 떠나갈 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굉장한 일을 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꼭 있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작은 야고보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별로 요란스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도 됩니다. 별로 자랑할 만한 공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작은 야고보의 삶처럼 꼭 필요했던 제자였습니다. 아름다운 작은 야고보는 시리아에 가서 전도하였고 시리아교회를 세웠습니다.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야고보의 목숨이 끊어지지 않아 톱을 가지고 겹으로 장렬하게 순교하였습니다.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제일 예수님을 닮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실제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

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사 53:2)

예수님께서 당신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작은 야고보 같은 제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세상에서는 대통령이 장관으로 부르면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마지막 추수꾼으로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부족해서 못한다고 합니다. 부족하니까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채워서 쓰시려고요. 퍽퍽하고 잘 나고 차고 넘치는 사람은 부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허물과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쓰시고자 하십니다. 낯익은 오감 같이 비천한 우리를 성령의 용광로에 넣어서 주님의 주발대접으로 쓰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은 배설물을 담고 있는 그릇이 아닙니다. 사도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빌 3:8)

여러분은 작은 야고보와 같은 예수제자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제자 되기 위해 투자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실천 가능한 일을 실천하면 이보다 더 좋은 투자는 없습니다. 어부 베드로의 투자와 세리 마태의 투자가 부럽습니다. 작은 야고보의 투자가 부럽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잘 투자하여 풍성하게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충성된 작은 야고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hayongho@hotmail.com

사·모·칼럼



허양희 사모 (텍사스 오스틴 주님의교회)

선택

하나님의 나라도 한 사람 아담으로 위협받았고 한 사람 예수님으로 위로받았던가! 목회 현장에도 마찬가지 같다. 사명자로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아가다가도 한 사람의 거친 말로 위협받아 상처 난 가슴을 움켜쥐고 며칠을 보내다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또 한 사람의 따뜻한 말로 위로받아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것이 말이다. 그 한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가 선택을 했다. 자아 중심적인 말을 하기로 또 한 부류는 하나님 중심적인 말을 하기로 스스로 결정을 했다. 그들의 선택은 자유였으나 그 결과는 판이했다. 위협과 위로로!

삶에 위협을 주는 부류들을 탐색하다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한 게 있다. 그것은 열등감이다. 모든 이는 살아가면서 겪은 경험으로 저마다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권위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 연약함을 뽐내는 가시로 마음에 숨기고 있다가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질투와 시기의 마음이 잠잠하게 있던 그 가시를 발동시켜 비난의 말로 험하게 찢어버리는 것으로 보였다. 유유상종이라고 꼭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이들 곁에는 비난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곤 한다. 그리고 그들 간의 타인에 대한 연약함을 자아 중심적인 말로 비난하며 부정의 담합을 하는데 이들은 그들 자신의 이런 부정적인 습관을 잘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었다.

삶에 위로를 주는 한 부류의 공통점은 자존감이다. 돈이 많고 지식이 넓고 자존감이 높은 것은 아니었다. 돈이 부족해도 지식이 넓고 자존감이 높은 자존감을 가진 건강한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는다. 그저 그들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존중하고 또 다른 이들도 그렇게 대하는 품격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언어 습관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오는 위로와 따뜻함으로 채워져 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 교회 안에 있으면 얼마나 사역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할까 잠시 치기 어린 생각을 해 본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단 한 사람의 부정적인 말은 한 존재의 사고를 사로잡아 그 정서를 괴롭힌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의 고통 또한 이런 스트레스가 대부분이라 여긴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 새해, 남은 열한 달을 건강하게 관계하는 방법은 없을까?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을 감정으로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 같다. 정말 쉽지 않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받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며 부정적인 기운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시간이 필수적인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말로 상처받은 마음은 또 다른 사람, 특히 배우자에게 뽐나게 전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을 선택하자. 부정적인 생각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고 건강하게 채울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쉬운 성경, 빌립보서 4:6, 8).

yanghur@gmail.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sections for NY, NJ, Hawaii, and other regions.











# mission 선교의 창 (231)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적 부담

우리는 거리를 지나치면서 아름다운 예배당들을 많이 목격한다. 유럽의 교회당들이 예술적이라면 미국의 교회당들은 목가적이다. 넓은 대지에 위아스레 자리 잡은 교회는 한 폭의 그림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작 안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 쓸쓸한 경우가 많다. 특히 500명은 앉을 좌석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들 몇 명이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나 젊은이들을 찾아보기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참여 숫자와 구성비율도 문제제기와 어떤 교회는 예배 중심보다 1세대들의 친목회처럼 느껴지는 곳도 있다. 신앙심이 특심인 한인교회는 어떠한가? 점차 서구 교회의 양태를 닮아가고 있다. 자녀 세대가 없는 교회는 속이 빈 고목나무와 다를 바 없다. 이러한 나무는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 교회도 생물체처럼 수명이 있는 것일까?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현상을 냉정히 진단하고 대안을 세워야 한다.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대부분의 교회들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특히 정보화 사회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면서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포함한 젊은이들의 숫자는 계속 줄어만 갔다. 코로나 사태 이후 그 실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한국의 크리스천 월드 모니터지(The Christian World Monitor)에 의하면 "한국교회는 50% 이상이 어린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 특히 중소형교회는 더욱 심각하다. 한인교회 주일학교는 현재 위기를 넘어서서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한다. 2030년에는 교회 주일학교의 90%가 사라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있다. 아무튼 짐 실은 수레가 내리막길로 달려 내려가듯 한인교회 쇠락의 가속도는 눈으로 보이고 체감할 정도이다. 통탄할 일이다.

### 2. 문제의 진단

일반적으로 교회학교 전문가들은 자녀세대의 신앙적 위기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 1. 차세대의 신앙 실태

대한민국 어린이 교회학교는 1922년 조선주일학교연합회가 조직되면서 성장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1930~45년 일제의 탄압으로 교회가 위기를 맞으면서 교회학교도 위축됐다. 6·25 이후 주일학교는 다시 부흥의 길로 돌아서 9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도약하며 발전했다. 이 시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인 교회학교 학생들이 이후 한국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여세를 한 때 한국교회는 12.5%의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1990년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자연적인 인구 감소, 핸드폰이나 인터넷 등의 문명의 이기가 낳은 유희, 육신을 즐기는 쾌락 문화, 날로 다양해지는 욕구 불충족, 교회 지도자의 무관심, 주일학교 교육 담당자의 역량 부족, 진부한 교육방식, 열악한 교육환경, 한국교회의 신뢰도 감소, COVID 19로 인한 교회 환경의 변화 등이 주된 요인이라고 한다. 일리가 있다. 그러나 정확한 진단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논리로 본다면 옛날은 지금보다 좋았던 말인가? 아니다. 어린이 신앙교육에 대한 교회의 관심, 담당교사들의 역량, 교육환경, 시대적인 배경 등 모든 면에서 더 형편없었다. 그러함에도 교회는 부흥했고 어린이 주일학교는 성황



**속이 빈 고목나무는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없는 교회는 속이 빈 고목나무와 같다.  
1세대의 신앙이 2세대로 전수 되지 않는 한 교회의 미래는 없다.**

을 이루었다. 사실 지금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개발된 각종 교육자재, 담당자들의 자질, 쾌적한 환경 등은 30년 전과 비교하면 놀라울 정도로 나아졌다. 그렇다면 근본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현용수 박사는 유대인 교육신학에서 찾았다.

#### 3.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발명왕 에디슨은 "천재는 99% 노력과 1% 영감으로 만들어진다"고 했다. 그의 말에서 핵심은 노력보다 영감이다. 무슨 일이든 진단과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 그 수고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다. 차세대에게 어떻게 신앙전수를 잘 할 수 있을까? 그간 해왔던 전통적 방법으로는 이미 한계성에 도달했다. 표피적이고 알파한 교육 수단으로는 2세대들의 심금을 울릴 수 없다. 우리는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현교수는 말한다. "이는 단순한 교육으로 될 일이 아니다. 선교적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 유대인들은 타문화권 선교는 하지 않았지만 자녀세대를 향한 수직선교에 목숨을 걸고 있다. 결과 그들은 외세의 그 모진 핍박에도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세계에 지대한 영향

력을 끼쳐 왔다. 성경에 두개의 지상명령이 있다. 신약은 마 28:19-20이며 구약에는 창 18:19& 신 6:4-9이다. 유대인은 구약의 지상명령에 충신했고 기독교 교회는 신약의 지상명령에 충신했다. 결과 유대인은 4,200년 동안 자자손손 신앙을 대물림 했고 기독교회는 오대양 육대륙에 선교사를 보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신약의 교회는 단명하며 자녀세대를 신앙적으로 잃어 버렸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회는 수평선교를 지속하되 수직선교도 같은 수준에서 병행해야 한다." 맞는 말이다. 우리 한인교회가 죽으면 선교도 죽게 된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델은 서구교회가 아니라 성경이다.

#### 4. 신앙전수의 좋은 모델

1세대인 부모는 2세대인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하는가? 재산이 아니다. 신앙이다. 신앙이 없는 자에게 재산은 독이 될 수 있다. 신앙은 당대의 자신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의 운명을 결정한다. 여기 두 가문을 대비한 극명한 실화가 있다. 사회학자이자 뉴욕 주 형무소 위원이었던 리처드 덕데일(Richard Dugdale)은 1875년에 "जू크 가문의 유전적 전통"

죄자, 310명의 극빈자, 400명이 부주의로 신체장애자가 되었다. 맥스 쥬크의 자손들은 뉴욕주에 \$1,250,000 이상의 피해를 끼쳤다. 이에 반해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s)가 있었다. 그는 1703년 출생했으며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 그는 예일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다. 그의 후손 가운데는 1명의 부통령, 3명의 상원의원, 3명의 주지사, 3명의 시장, 13명의 대학 총장, 30명의 법관, 65명의 교수, 80명의 고급 공무원, 100명의 변호사, 100명의 목회자와 선교사가 나왔다. 충격적이다. 어떻게 이리 다를 수 있단 말인가?

#### 맺음 말

전 세계 5만여 한인교회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인가? 1세대의 신앙 유산을 이어받아야 할 2세대가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위기감을 너도나도 쉽게 토로하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기독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송고한 지상명령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간 간과했던 구약의 지상명령을 새롭게 인식하고 연구해 우리 것으로 소화할 필요가 있다. 만일 우리 부모세대가 자식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다면 수직선교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 되고 필경 세계의 한인교회들도 화석처럼 건물만 남고 말 것이다. 우리는 그 누구도 불행의 대명사 격인 맥스 쥬크(Max Jukes)의 가문을 흠모하지 않는다. 모두가 명예로운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s)같은 가문을 원할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다. 지금 우리 1세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2세대의 미래가 달려 있다. 당대에 쥬크나 에드워드는 각각 1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씨가 후대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Jrsong007@hanmail.net

###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 30강 라합, 요단, 기념돌 그리고 여리고 (4) (여호수아 1-9장)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함을 제하여 다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수 8:1)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 성은 가나안 첫 성이 아니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탈취한 물건과 가축을 가질 수도 있고 비록 작은 성이지만 하나님은 전쟁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수 8:2).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신대로 전쟁을 하여 승리를 합니다(수 8:3-29). 모세의 안수로 '지혜의 영'이 충만한 여호수아는(신

34:9)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수 8:27). 그리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한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의 율법을 그 돌에 기록하고 율법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스 산과 에발 산에 세우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는데 모세가 명령한 것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수 8:28-35).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군을 넘겨주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이깁니다. 소년이 나가도 이기고(삼상 17:33,50,51) 어디를 가든 이

기고(삼하 8:6,14) 심지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전멸을 시키시기도 합니다(왕하 19:35).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적군의 손에 '넘기시고'(사 6:1, 13:1) '팔아버리실' 것입니다(사 3:8, 4:2, 10:7). 심장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죄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자유로우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제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정복하지 않은 나라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는 상황에 기브온 주민들을 만났습니다(수 9:1-6). 다른 나라 왕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과 달리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그들이 가나안 족속인 줄 알고 그럴 수 없다고 하지만(수 9:7) 그들이 보여준 '곰팡이 난 떡'과 '찢어진 포도주 가죽 부대' 그리고 '납아버린 옷과 신'을 보고는 조약을 맺고 족장들이 맹세도 합니다(수 9:8-15). 그리고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이 가나안 족속인 것을 알았지만 이미 족장들이 하나님으로 맹세를 하였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을 할 수 없

습니다.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여호와와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때며 물을 길는 자들이 됩니다(수 9:16-27).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족속에 대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수 9:14). 이제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울무가 될 것입니다(출 34:12/ 신 12:30/ 수 23:13/ 삼하 21:1-14). 심장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네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멈추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이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

워야 함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도 요단을 건너도 여전히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 할 수 없습니다. Up and down을 반복할 것이 고 마침내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되는 가나안 전쟁,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범죄하지 않아야 하지만 끊임없이 자신의 소견을 앞세워던 백성들의 이야기 그럼에도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 hfamilyfa@gmail.com



가정 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79. 아버지의 4가지 영적 권위

하나님은 아버지를 한 아내의 남편으로,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가정의 머리(Headship)로, 가정 예배의 인도자로,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자녀들에 대한 4가지 영적 권위를 주셨습니다.

1. 축복권(祝福權)이다.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정에서 자녀에게 날마다 행사해야 합니다.

“여호와와 함께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함께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함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민 6:24-26)는 축복의 말씀대로, 아버지학교에서는 캔디데이터 아버지들에게 매일 이른 아침과 잠자기 전 저녁에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안전과 은혜와 평강을 빌며 축복기도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자녀들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고, 축복을 빌어주므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야 합니다.

2. 말씀권이다.

하나님은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매일 하나님의 음성(말씀, 명령)을 듣고 받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가정예배나 대화를 통하여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전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오직 하나인 여호와와 함께,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신 6: 4-9)는 쉼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는 쉼마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으로, 오늘날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전세계를 지배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3. 훈육권(訓育權)이다.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신 훈육권은 아버지가 가정에서 덕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쳐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도록 기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도덕과 윤리가 자녀에게 기준이 됩니다. 자녀를 훈계하지 않는 것은 죄이며, 직무유기입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자녀의 교정과 성숙을 위하여 훈계와 징계를 해야 합니다. 징계받는 자녀에게는 결심이 생기고 부모의 권위에 대한 존경심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징계하되 혈기나 분노, 개인적 감정으로 해서 안됩니다.

성경에서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엢 6:4)고 하였고, “조달을 차마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잠 13:24)고 하였고,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얼렸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잠 22:15)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삼상 3:13)는 말씀대로, 엘리 제사장은 자녀의 잘못을 보고도, 알고도,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두 아들과 며느리와 자신까지도 저주를 받아 죽으므로 가문이 멸하게 되었습니다.

4. 신앙전수권(傳授權)이다.

신앙의 유산을 남겨 주는 것이 아버지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신앙의 전수야말로 아버지가 자녀의 미래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이삭이 순종의 조상이 되었고, 아버지 이삭의 믿음을 이어받은 야곱이 축복의 조상이 되었듯이, 아버지는 미래의 자손에게 기억되고 본받을 만한 자랑스러워 할 만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사도바울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의 청결한 양심과 눈물, 그리고 조상 적부터의 믿음의 삶을 생각하며,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계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딤후 1:5)고 말씀하신 디모데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계의 믿음의 유산을 상속, 전수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삼사 대까지 저주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상숭배하지 않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축복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출 20:3-6)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숭배하지 아니하므로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하여 천 대까지 축복받는 명문의 가문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jaekunlee00@hotmail.com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베트남

▲ 종족명 파이 탄 종족

▲ 인구 약 20,000명

▲ 종교 민속 종교 99%, 복음화율 1%

▲ 복음매체 성경 번역 필요, 기타 매체 없음

▲ 종족프로파일 라오스 국경 근처 베트남 북부에 살며 쌀과 채소를 재배하고 가축을 기른다. 정령을 숭배하는 이들의 고유 종교는 제물을 바치면 평화를 유지하고 행운을 얻지만 바치지 않으면 가족이나 농작물이 큰 해를 입을 수 있다고 믿는다. 성경 녹음, 예수 영화, 자신의 말로 된 성경 말씀 등의 자료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 기도제목

- 1. 파이 탄족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고 복음을 전해 줄 사역자들을 보내 주시도록
2. 성경 번역과 함께 복음 녹음, 예수 영화 더빙 등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3. 믿음공동체가 제자로 세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3면에서 계속)

실문조사에 의하면 탑승자를 희생시켜서라도 보행자를 지켜야 한다고 답하지만, 그런 기능이 달린 차를 자신이 타고 싶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인간이 상상하는 가장 수준 높은 인공지능보다 훨씬 뛰어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

에게 부여된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배신하는 쪽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말았지요. 우리가 가진 지능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원칙 아래서 그분의 통제를 받으며 사용될 때 가장 바람직하게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자유의지와 지능을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 사용하므로 죄와 죽음의 굴레를 덮어쓰게 되었습니다. 이런 타락한 인간은 신의 존재를 부정해 버렸고,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부딪치는 문제가 스스로 움직이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의 문제이고, 이것은 아직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문제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지능을 부여하실 때 이 문제에 대한 해답도 같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지능은 인간의 능력의 한계라는 큰 벽에 부딪히게 해 두셨고, 그 능력의 한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다 시금 하나님의 통제 아래로 들

어오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한계 덕분에 인간은 인간을 창조하신 이의 뜻을 알게 되었으며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적절한 균형을 이루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가 바로 그 인간 능력의 한계를 과학의 발전으로 점점 없애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더 오래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며,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는 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신이 점점 필요 없어지고, 더 나아가 신은 불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죽음이며, 죽음 너머의 세계이고, 그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스스로 느끼는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살아갈 때 겪는 죄의 문제는 긍정심리학이나 철학 같은 학문이 일정 부분 죄책감을 해결해 주지만 죽음을 앞에 둔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

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그 대답이 되었지요. 과학의 시대에 우리가 겪는 감사한 불행은 죽음이 시간의 흐름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 사고의 형태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0년을 넘게 살 수 있는 시대임이 분명하지만, 오늘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시대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by 전재훈, TGC

Midwest University advertisement featuring a campus scene, text in Korean and English,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the text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and '2024년 봄학기 신, 편입생 모집'.

제 9회 신앙도서독후감 공모전 우수상

팀 켈러의 『탕부의 하나님』을 읽고

조진석 목사 (주의길교회)



내가 팀 켈러 목사의 책을 처음 접한 것은 한국의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였다. 친구 목사님은 서울의 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도시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던 차에 팀 켈러 목사의 목회 철학과 사역을 접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을 읽고 연구하던 중에 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나에게도 팀 켈러 목사님을 소개하며 그분의 두꺼운 책 한 권을 선물해 주었다. 팀 켈러 목사의 목회에 대한 소개와 신학적 배경과 사역 원리를 설명하는 책이었는데, 이 후로 팀 켈러 목사의 설교와 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에게 진실하면서 영혼을 위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 방법이 매우 창의적이지만 진리 안에 견고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배울 것이 많은 목회자요, 철학자라고 생각했다.

이 책 『탕부의 하나님』 역시 나에게 새로운 통찰과 반성을 일으키는 거센 파도 같은 책이었다. 먼저 나는 팀 켈러 목사의 책 『탕부의 하나님』에서 두 아들에게 배분한 지면의 양을 주목했다. 거의

정확히 3분의 2를 큰 아들의 상태를 다루는데 활용한 것을 본다. 그것은 팀 켈러 목사가 주 독자층으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고려하여 글을 쓰려고 하였는가를 알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당시 특정 계층의 사람들, 말하자면 그 당시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 사회의 큰 아들들이 예수님에게도 역시 구원해야 할 잃어 버린 자들로 여겨지셨다는 것을 더욱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변하지 않는다. 두 아들을 구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뿐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 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은 아들은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나지만 큰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확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저자가 지적하는 바 형들의 이런 모습의 이유는 "눈 멀어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절망적"이라는 데 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형들은 그저 의무감으로 아버지와 함께 한다.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의 지시를 따른다. 그 순종의 배경이 되는 것은 '두려움'이라

고 지적한다. 더 정확히는 "두려움에 기초한 맹종"이라 말한다. 즉 형들의 순종은 복음에 기초한 순종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과 위치를 사수하기 위한 복종에 가깝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 복종은 자기 의로 쌓여져 결국 이 행위적 복종의 대가로 아버지의 것을 요구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고 어느덧 아버지와 대등한 위치에서 아버지와 대결하는 구도를 만들게 된다.

이러한 형들에게서 나타나는 병적 증상들을 읽으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조금은 고통스럽게, 아니 사실은 매우 아픈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여간해서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나를 자극하고 화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은 세상에서 늘 감정을 잘 조절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이것이 통제되지 못할 때가 있고 느닷없이 그 벽을 허물고 나타날 때가 있어 가끔은 나 자신도 놀라곤 하는데, 팀 켈러 목사의 답답하지만 정확한 분석을 읽으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형들은 자기 결정에 기초한 순종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 밖에서 의의 성을 쌓으며 그것으로 존재 가치를 삼기 때문에 이를 견드리거나 무너뜨리면 불을 뿜어 낸다는 것이다. 세상을 '불행과 불화'에 빠트린

다고 팀 켈러 목사는 지적한다.

유독 자기 변호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나 같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며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이 나를 평가하고 나에게 대해서 무엇인가를 지적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잘 견디지 못한다. 이에 대해 마음을 굳게 다 잡아도 이런 상황이 오면 내 얼굴이 이에 대한 불편을 감추지 못한다. 그리고 나는 왜 그 지적이 틀렸는가를 설명하는데 목소리를 높인다. 자기 변호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탕자의 형들이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다. 크고 엄청난 진동이 나를 때렸다. "자기 변호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 나는 이 대목을 읽으며 너무나 부끄러웠다. 마치 벗겨버린 임금님처럼 나의 벗겨버림을 그대로 드러내는 기분이었다. 이 글을 혼자 읽고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될 정도였으니 말이다.

형들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차라리 동생처럼 한대 맞고 '아, 아프다.' 하고 끝나는 것이 나를 성 싶은데 형들은 더 참혹한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 저자는 그것을 드러내고, 나는 또 이것 역시 피할 수 없는 해당사항이기에 온 몸을 움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자는 형들처럼 자기 의에 기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내면적 증상으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 없음"을 말한다. 이에 대한 부수적인 증상으로는 기도생활이 건조하다는 것이 대표적이고, 아울러 기쁨으로 울려 드리는 찬송이 없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그렇다. 나는 잘 알 수 있다. 내 신앙 생활이 엉망

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는 저자가 지적한 그런 경향이 나타남을 나는 많이 경험했다. 하나님의 일을 누구보다 성실히 감당했다고 자부하며 보낸 지난날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지만 그 가운데 기쁨의 찬송이 있었고 눈물 어린 감격의 기도 생활이 있었는가 묻는다면 나는 사실 할말이 없다. 그러나 그 세월을 누군가 폄하한다면 나는 또 열을 올리며 나를 변호할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였노라고,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었노라고! 그래서 나는 확실히 형들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독후감을 쓰면서 지나치게 자조적인 투로 써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나는 그 핑계를 저자의 단어 선택에 돌리고 싶다. 저자는 이 책을 쓰면서 기가막힌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신의 한 수라 생각된다. 바로 탕자의 "형"이 아니라 "형들"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다. "탕자와 그 형"이라고 하면 그 스토리는 그저 단순한 교훈이요 성경 속 이야기로 끝이 나 버린다. 그런데 "탕자와 그의 형들"이라고 하면 스스로 그 비유 속 형 같은 많은 이들이 자기를 떠 올리게 된다. 그 "형들"이라는 단어는 당시의 바라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그리고 이 시대의 나를 그 자리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팀 켈러 목사는 많은 지면을 "형들"을 다루는데 할애하면서 동생에 비해서 훨씬 아버지에게서 멀어져 있는 대상으로,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가 더 어려운 사람들로 묘사한다. 하지만 이들 역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버지 곁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동생과 매 한가지의

길만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이다. 『탕부 하나님』이라는 제목이 신성 모독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책을 읽고 나니 확연히 이해가 갔다. 작은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있을 수 없는 요구 조건과 그 태도를 보면서 탕자라고 말할 수 있다면, 큰 아들이 마음으로 아버지를 이미 멀리 떠나 아버지의 권위를 묵살하고 오히려 아버지를 잘 못된 길에서 있는 사람인 듯 정죄하는 모습을 또 다른 탕자라고 말할 수 있다면,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두 아들을 그저 사랑으로 기다리고 보듬으려는, 어찌면 문제의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무조건적인 수용적 태도의 아버지도 분명 탕부라고 불릴 수 있을 듯 하다.

저자는 말한다. "아들의 자격과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방적 마음으로 아들의 가난과 누더기를 덮는다."라고. 나는 이 책을 읽으며 형들의 무리 가운데 내가 서 있고, 스스로를 비유속 탕자의 형과 다름 바가 없음을 자책하는 마음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거기서 멈춘다면 그것은 또 다른 탕자로 머무는 것일 뿐이다. 수십 년 목회를 하며, 그리고 인생의 중반기를 지나가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는 것 외에 소망이 없다는 것이다. 목회도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해 왔고, 가정도 주님 때문에 잘 지켜졌으며, 내 인생도 주님으로 인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기 의를 변호하기에 열 올릴 일은 없을 것이다. 저자는 형이 형의 상태를 몰랐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라고 했으니 그 위험 지대는 벗어 나도록 하자.

베드로 진서 16

영성을 위하여 1

한국의 옛 노래에 해는 저서 어두운 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하는 가사처럼 은퇴를 하고 인생의 황혼기를 맞

이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노래처럼 들린다. 특히 내 친구 어디가고 나 홀로 남아서 하듯이 이미 같은

시대를 살고 함께 정을 나누는 분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만 알았던 분들도 한 돌씩 떠났다는 이야기를 읽을 때 더 더욱 그러하다.

그 가운데 남은 자들에게서 들리는 이야기들은 외롭다 심심하다 에서 시작하여 누가 죽었다 어느 친구가 암에 걸렸다 하는 소식으로 일과를 지내는 것 같다. 그러나 은퇴 자들에게는 죽음이 옆에 있고

혹시나 나는 그 병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그리고 혹시 의사가 병을 선고한다면 내 병은 고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은퇴자들의 심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루는 상담사로 일하는 큰 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확실히 노년에는 그런 외로움과 질병의 두려움 때문에 은퇴자들에게 우울증이 많고 그것이 오히려 또 다른 병을 낳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빠도 자원 봉사자 같은 것 해보실래요? 하고 물었다. 그렇잖으면 여행을 하시든지 글을 쓰든지 뭐라도 하라고 권유했다. 고마운 말을 들으면서 아빠는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아빠는 예전 목회할 때의 그 영적인 템포를 늦추지 않고 지금도 똑같이 생활하니 염려마시라 하고 안심시켰다.

revpeterk@hotmail.com



김경진 목사 (빌라델피아교회 은퇴목사)

Exclusive Offer Available at Flushing, Fort Lee, Jericho, and Palisades Park Branches!

11 Month Certificate of Deposit

5.25% APY\*

The Bank of Princeton

thebankofprinceton.com | 609.921.1700

\*APY = Annual Percentage Yield. Promotion available at Flushing, Fort Lee, Jericho, and Palisades Park branches ONLY. Offer valid on an 11 Month CD with a minimum opening deposit of \$500 per tax ID. Once the initial 11 Month CD time has elapsed, the CD will roll over for an additional 11 Month CD at the prevailing interest rate. This will continue until customer notifies the Bank within ten (10) days of maturity date. Promotion begins at 9:00AM EST on January 8, 2024; subject to change or cancellation without notice. Early withdrawal penalty may apply; fees may reduce earning. Other terms and conditions may apply.



저희 프린스턴 은행은 한인 고객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자 및 예금 상품 안내를 포함한 궁금하신 사항은 www.thebankofprinceton.com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문익은 플러싱-체리코-포트리-팔리세이즈파크 지점으로 하시면 됩니다.